

금주 관심종목: GS파워, 대신F&I, 한화건설 외

김기명 3276-6206
kmkim@truefriend.com권현주 3276-4542
hyunjoo.kwon@truefriend.com박다희 3276-6172
dahui.park@truefriend.com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크레딧팀입니다.

이번 주 관심종목은 한화건설, GS파워, 현대스틸산업, 대신에프앤아이, 현대비앤지스틸을 선정했습니다. 이 외에 한 주간 등급변동 및 주요 신평사 보고서도 요약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신용등급 변동사항 (6/2~6/8)

변동일시	신평사	발행회사	변동전	변동후	변동사유
6/3(수)	NICE 한신평	케이티렌탈	A+/안정적	AA-/안정적	- 2015년 2월 롯데그룹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월 본계약 체결, 6월 3일 롯데그룹으로 매각 완료되어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 - 한신평 하향 트리거: 자동차렌탈시장 점유율 20% 이하, ROA 1% 이하, 총차입금/EBITDA 4배 이상
6/3(수)	NICE	삼성중공업	AA/부정적	AA-/안정적	- 조선업황 악화 지속, 수주실적 저하, 주요 해양프로젝트 수익성 저하 등 감안할 때 하향 트리거로 제시한 연결기준 EBITDA 마진 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익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감안
6/3(수)	한신평	전주페이퍼	A/안정적	A-/안정적	- 회사는 국내 신문용지 1위 업체이나 국내 내수 출하량 2000년 약 131만톤에서 2014년 약 64만톤으로 감소하며 장기간의 내수 수요 감소로 수익기반 약화, 2014년 업계 가격경쟁 심화로 회사 내수시장점유율 약 4%P 하락하고 영업이익률 4.6%P 하락 - 현재 진행 중인 업계 가격경쟁 일단락될 경우 일정수준 수익성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상향 트리거: 총차입금(최근결산)/EBITDA(3년평균) 4배 이하 - 하향 트리거: 총차입금(최근결산)/EBITDA(3년평균) 6배 초과, EBITDA 마진(3년합산) 7.5% 미만
6/3(수)	NICE	노루페인트	BBB+/안정적	BBB+/긍정적	- 국내 도료업계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인 대리점망 등을 통해 우수한 시장지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실적 및 재무안정성 개선 추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연결기준 영업이익률 2012년 4.1%, 2013년 4.9%, 2014년 5.9%, 2015년 1분기 5.0%) - 상향 트리거: 연결기준 총차입금/EBITDA 3.5배 이하, 영업현금흐름/총차입금 15% 이상 - 하향 트리거: 연결기준 영업이익률 4% 하회, 순차입금의존도 30% 상회
6/5(금)	한신평	종은사람들	BBB-/부정적	BBB-/안정적	- 양호한 영업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순차입금 2013년말 125억에서 2015년 3월말 32억으로 감소, 2014년 단기성차입금 46억 상환과 장기차입금 25억 조달로 단기성차입금 비중 2013년말 81%에서 2014년말 63%로 감소 - 마진이 낮은 홈쇼핑 매출을 줄이는 가운데 직영점 비중 낮추고 프랜차이즈 늘림으로써 수익성 위주 영업하고 있음, 재고자산 2013년말 454억에서 2014년말 402억으로 일부 감소해 재고부담 완화 - 상향 트리거: 연결기준 운전자금 회수기일(3년 평균) 150일 미만, EBITDA 마진 10% 이상 - 하향 트리거: 연결기준 EBITDA 마진 4% 이하

2. 지난 주 신평사 스페셜 리포트 주요내용 및 KIS Comment(6/2~6/8)

신평사	주요내용 및 KIS Comment
	제목: 해운업종 정기평가 결과 및 개별업체별 주요 포인트
-개요	2015.6.1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등 총 10개 해운업체 신용등급 평가결과, 신용등급 하향 1건(현대상선 BB+/안정적→BB/안정적), 신용등급 상향(폴라리스취핑 BBB/안정적→BBB+/안정적)
한기평	-주요 업체별 동향 및 모니터링 요소 1) 한진해운(BBB-/부정적) 연료비 절감과 함께 운임이 상승한 미주노선에 주력한 영향으로 2015.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550억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양호한 실적을 시현함. 다만 개선된 실적의 지속가능성은 모니터링해야함. 해운 시장 전망이 불확실하고,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2016년 이후에는 유럽노선에 투입되었던 대형선박들이 동사가 주력했던 미주노선으로 전배되면서 노선 경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한편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벌크전용선 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대항공공의 지원에 힘입어 1.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2015.3월말 총차입금은 6.1조원대로 축소, 부채비율도 910%대로 소폭 낮아진 모습임. 그러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차입금의존도 74.1% 등 제반 재무안정성 지표가 여전히 미흡하여 단기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등급전망을 종전의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함

2) 현대상선(BB/안정적) 장기 및 단기신용등급을 각각 BB/안정적, B로 하향조정함. 2015.3월말 기준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여전히 단기위주의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함. 연료비 절감으로 대형선사들이 실적이 개선된 점을 감안 할 때, 주요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확대되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함. 당사는 유동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이후 LNG 전용선 매각,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매각 등 당초 발표한 자구계획의 상당부분을 이행하였음. 이에 따라 자기자본은 2015.3월말 8,35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1,400%에 육박하던 부채비율도 660%로 감소했음. 그러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차입금의존도 76.8% 등 제반 재무안정성 지표들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3) SK해운(A-/안정적) 가스선 부문은 유가하락에 따라 매출 감소, 벌크선 부문도 용선대 축소와 운임하락으로 매출감소하면서 2014년 동사의 매출은 전년대비 5.1%, 2015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9.5%의 매출 감소가 나타남. 단,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됨. 탱커선 부문 수익성 상승과 벙커링 부문의 이익률 상승이 양호한 수익성을 견인함. 수익성 개선과 함께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SK B&T 지분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으로 2015.3월 연결기준 순차입금은 3.6조원으로 감소,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도 각각 999.7%, 84.5%로 소폭 개선됨. 다만 차입금의 절대규모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향후 유가 흐름 및 탱커 시장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존하여 개선된 실적 지속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4) 플라스쉬워퍼(BBB+/안정적) 장기 및 단기신용등급을 각각 BBB+/안정적, A3+로 상향조정함. 해운시황 침체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장기운송계약 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영업수익성을 실현함. 2015.3월말 현재 운항중인 총 32척의 운항선대 대부분이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등 우량화주들과 9~20년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203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장기운송계약 이행을 위한 선박 도입과정에서 대규모 선대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015.3월말 총차입금은 1.3조원대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차입금의 80%가 선박금융에 따른 장기차입금으로 장기운송계약의 현금흐름과 매칭되어 있어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3. 지난 주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수요예측일	발행회사	등급	만기	발행금액	발행조건(수요예측전)	발행조건(최종)	참여수량
5/27(수)	지에스이앤알	A+/안정적	3년	1,000억	3년 -0.30%~0.10%p	3년 +0.10%p	1,000억
			5년	1,000억	5년 -0.30%~0.10%p	5년 +0.10%p	500억
5/28(목)	기아자동차	AA+/안정적	5년	2,500억(1,500억에서 증액)	5년 -0.15%~0.05%p	5년 +0.05%p	3,800억
			7년	2,500억(2,000억에서 증액)	7년 -0.16%~0.04%p	7년 +0.03%p	2,500억
5/28(목)	세아홀딩스	A/안정적, 부정적	3년	500억	3년 -0.17%~0.03%p	3년 -0.05%p	800억
6/1(월)	쌍용양회공업	BBB+/안정적	2년	500억(300억에서 증액)	2년 -1.00%~0.00%p	2년 -0.60%p	890억
6/3(수)	BNK금융지주	AA-/안정적	30년	1,500억	5년 +1.80~2.40%p	5년 +2.40%p	640억
				500억	10년 +1.90~2.50%p	10년 +2.50%p	150억
					*국고5년, 국고10년 기준		

4. 이번 주 관심종목

발행회사	등급	KIS Comment
한화건설	A-/안정적	개요: 201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9위의 종합건설업체로 최근 들어 해외공사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건축공사의 매출비중이 20% 이하로 축소되었음. 2015.3월 별도기준 매출액 비중은 국내건축 20%, 토목 14%, 국내플랜트 6%, 해외건축 37%, 해외플랜트 19%로 공종별 다각화 되어 있음
		현황: 이라크 정정불안으로 이라크 신도시 사업의 공사진행이 지체되면서 2014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3.1조원으로 감소. 다만, 2014년말 착공기준 약 12조원의 공사잔량을 확보하고 있고, 이라크 신도시 사업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준의 매출 실현 가능할 전망. 반면 해외플랜트 공사 경험 미숙에 따른 공기지연 및 원가상승으로 2014년 별도기준 1,030억원의 영업적자와 4,117억원 당기순손실 기록함. 2015.3월말 총차입금은 2조원에 달하고, 단기상차입금비중은 70%로 상환구조가 단기화됨. 다만, 작년 4천억원의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했으며, 한화생명보험주식(2015.3월말 1.6조원) 등 보유중인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그룹의 신인도에 기반한 재무용통성 감안할 때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함
		전망: 2012년 바그다드시 근교 비스마야의 10만세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사업을 수주. 단독 프로젝트로는 해외건설 사상 최대규모로 동사가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총괄하며 총 공사기간이 7년, 도금액은 77.5억불에 달함. 또한 2015년 4월 이 사업과 연계하여 약 2.3조원 규모의 비스마야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 수주함에 따라 관련 해외 매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해외사업 고유의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정정불안으로 사업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함. 한편 국내주택부문은 예정분야사업이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주택경기 회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부담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GS파워	AA/안정적	개요: 열병합발전 등을 통해 안양 및 부천지역 내 약 30만세대에 열을 독점 공급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PPA)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2014년 기준 전력판매가 총 매출의 약 68%로 전기판매 중심의 매출구조임. 올해부터 안양 현대화사업 등 신규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 2012년 주주변동으로 현재 GS에너지와 KB컨소시엄이 각각 50%씩 보유함
		현황: 경기둔화 지속과 전력수급 개선에 따른 LNG발전기 이용률 하락으로 전력부문 매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사업매출은 2014년말 8,106억원으로 감소. 단, 용량요금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수익구조와 PPA가 체결된 발전기 보유로 적정 투자보수율을 보장받고 있어 우수한 영업현금흐름 창출을 지속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4년말 별도기준 순차입금 716억원, 부채비율 79.5%, 차입금의존도 11.1%로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기존 설비 노후화에 대응하여 2015년부터 안양 현대화사업(940MW)에 총투자비 1.5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관련 투자가 자체적인 현금흐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따라서 향후 차입금 증가 예상되어 재무안정성은 현 수준 대비 저하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투자는 2021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고,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현금창출력 지속할 전망으로 점진적으로 차입금 감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div>현대스틸산업</div> <div>A/ 안정적</div>	<p>개요: 2001년 현대건설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4년말 기준 현대건설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음, 철강재 설치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현대건설로부터 건설중장비 현물출자 받아 건설중장비 임대사업이 추가됨, 2014년 별도 기준 매출비중 강고 33%, 철골 41%, 특수구조물 12%, 건설중장비 임대 15%로 구성, 2014년 계열 매출비중 68%로 사업기반 안정적(현대건설 매출비중 47%)</p> <p>현황: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 5.5%, EBITDA 마진 17.3%로 수익성 양호한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2014년 해외매출 확대에 따라(매출비중 63%로 증가) 환율 변동 등으로 공사원가를 상승하며 영업이익률 4.2%, EBITDA 마진 15.8%로 소폭 저하, 영업현금흐름 지속적인 흑자흐름 보이고 있으나 CAPEX 부담으로(2013년 1,015억, 2014년 743억)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 2018년 준공 예정인 울진공장 투자 등 중단기적으로 CAPEX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p> <p>전망: 2014년말 총차입금 309억, 순차입금 153억을 기록해 부채비율 43%, 총차입금의존도 5%, 총차입금/EBITDA 0.4배로 재무안정성 우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2014년말 2,257억으로 매출 대비 비중 48%로 규모 큰 편이나 대부분 현대건설 및 계열사향으로 자산의 질 및 회수가능성 양호, 2014년말 수주잔액 3,389억으로 2014년 매출인 4,682억 하회하고 있으나 철강재 설치공사업 특성상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이며 양호한 수익성, 높은 계열 매출비중, 모회사의 높은 지원가능성 등 감안할 때 현재의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될 것으로 판단함</p>
<div>대신에프앤아이</div> <div>A+/ 안정적</div>	<p>개요: 2001년 우리금융그룹의 부실채권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4년 5월 대신증권에 인수되어 2015년 3월말 기준 대신증권이 100% 지분 보유하고 있음, 모회사 변경으로 모회사 지원가능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되었음</p> <p>현황: 당사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연합자산관리에 이어 상위권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말 기준 시장점유율(국내은행 부실채권 입찰매각 금액 기준) 약 25% 수준, 은행 부실채권 물량 감소, 경쟁회사 증가 등에 따른 부실채권 시장 경쟁심화로 은행 부실채권 낙찰가 비율이(매각가격/채권원금(미수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은 미포함)) 올라가는 등 전반적인 영업환경 저하되고 있으나 당사 연결기준 3개년 평균 ROA 2.8%로 양호한 수익성 유지되고 있음(2014년 순이익 및 ROA 각각 555억원, 2.9%)</p> <p>전망: 2015년 3월말 자기자본비율 16.33%으로 소폭의 저하추세 보이고 있으나(2014년말 17.81%, 2013년말 18.62%) 당사는 상위권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이 대부분 1금융권 담보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투자원금 회수기간 3~4년으로 우수한 회수율 기록. 따라서 양호한 수익성 지속 및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p>
<div>현대비앤지스틸</div> <div>A-/ 긍정적</div>	<p>개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있으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전문업체(매출비중 95% 이상).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시장은 포스코 계열과 현대차 계열이 과점하고 있으며 당사 시장점유율은 약 26% 수준(2015년 1분기 26.5%, 2014년 25.7%, 2013년 23.0%)</p> <p>현황: 열연강판, 니켈 등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 존재, 2015년 1분기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영업이익률 0.3%로 급감했으나 12년~14년 평균 영업이익률 5.3%, EBITDA 마진 8.1%로 수익성 양호한 편, 2015년 1분기에는 선제적으로 매입한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 난 것으로 원재료 소진됨에 따라 2분기부터는 수익성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p> <p>전망: 2015년 3월말 기준 총차입금 2,053억, 순차입금 1,794억으로 차입금의존도 34%, 부채비율 87%로 재무비율 양호한 수준(차입금의존도 감소추세로 2008년 49%에서 2015년 3월말 34%로 감소), 운전자본투자 변동에도 양호한 수익성, 대규모 설비투자 원료로 CAPEX 제한되며 잉여현금흐름 창출기조 유지. 우수한 계열신인도 등 감안했을 때 현재 재무안정성 수준 유지할 것으로 판단함</p>

〈지난 주 회사채 등급공시(6/2~6/8)〉

회사명	신평사	직전등급(Outlook)	현재등급(Outlook)	평가일	비고
경상북도개발공사	한기평		AA+(안정적)	2015-06-04	
광동제약	한기평		A-(안정적)	2015-06-04	
광주은행	NICE		AA+(안정적)	2015-06-08	
	NICE		AA(안정적)	2015-06-08	후순위
	NICE		AA-(안정적)	2015-06-08	신종자본증권
	NICE		AA-(안정적)	2015-06-08	조건부 후순위
교보증권	NICE		A+(안정적)	2015-06-08	
김포도시공사	NICE		AA(안정적)	2015-06-05	
노루페인트	NICE	BBB+(안정적)	BBB+(긍정적)	2015-06-0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NICE		AAA(안정적)	2015-06-08	
대구도시공사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3	
	NICE		AA+(안정적)	2015-06-04	
대구도시철도공사	NICE		AA+(안정적)	2015-06-04	
대신증권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3	
롯데카드	한기평		AA(안정적)	2015-06-04	
	NICE		AA(안정적)	2015-06-05	
마니커	NICE		BB+(안정적)	2015-06-05	
마니커에프앤지	NICE		BB(안정적)	2015-06-05	
삼보모터스	한기평		BB+(안정적)	2015-06-02	
삼성에스디아이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5	
	NICE		AA(안정적)	2015-06-05	
삼성중공업	NICE	AA(부정적)	AA-(안정적)	2015-06-03	
삼성증권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2	
	한기평		AA+(안정적)	2015-06-02	
	NICE		AA+(안정적)	2015-06-08	
삼성카드	한기평		AA+(안정적)	2015-06-02	
삼천리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4	
삼천리이엑스	한기평		A(안정적)	2015-06-04	
	한신평		A(안정적)	2015-06-04	
서희건설	NICE		BB(안정적)	2015-06-05	
성화식품	NICE		BB(안정적)	2015-06-05	
세아창원특수강	NICE		A+(안정적)	2015-06-03	
신성약품	한기평	BB(안정적)	BB-(안정적)	2015-06-02	
신세계	NICE		AA+(안정적)	2015-06-05	
신한금융지주회사	한신평		AAA(안정적)	2015-06-05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5	후순위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5	신종자본증권
신한금융투자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3	
아이비케이캐피탈	한기평		AA-(안정적)	2015-06-08	
	NICE		AA-(안정적)	2015-06-05	
아주스틸	NICE		BB-(안정적)	2015-06-04	
에스에이치공사	한신평		AAA(안정적)	2015-06-03	
	NICE		AAA(안정적)	2015-06-05	
에스케이케미칼	한기평		A(부정적)	2015-06-08	
에이치에스에드	NICE		A(안정적)	2015-06-04	
엔에이치개발	NICE		A(안정적)	2015-06-02	
엔에이치투자증권	NICE		AA+(안정적)	2015-06-08	
엘지실트론	한기평		A-(안정적)	2015-06-03	
	NICE		A-(안정적)	2015-06-03	
오씨아이머티리얼즈	한신평		A(안정적)	2015-06-08	
와이즈파워	NICE	CC(Negative)	C	2015-06-05	
율촌화학	한신평		A+(안정적)	2015-06-05	
	NICE		A+(안정적)	2015-06-02	
이지팜스	NICE		BB(안정적)	2015-06-05	
인천항만공사	NICE		AAA(안정적)	2015-06-08	

전주페이퍼	한신평	A(안정적)	A-(안정적)	2015-06-03	
제이비우리캐피탈	한기평		AA-(안정적)	2015-06-08	
제일기획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5	
좋은사람들	한신평	BBB-(부정적)	BBB-(안정적)	2015-06-05	
케이비금융지주	한기평		AAA(안정적)	2015-06-04	
	한신평		AAA(안정적)	2015-06-05	
	NICE		AAA(안정적)	2015-06-05	
케이티렌탈	NICE	A+(안정적)	AA-(안정적)	2015-06-03	
	한신평	A+(안정적)	AA-(안정적)	2015-06-03	
케이티캐피탈	한기평		A+(안정적)	2015-06-05	
	한신평		A+(안정적)	2015-06-05	
코아로직	한신평	BB(안정적)	B+(안정적)	2015-06-04	
크라운제과	한신평		A-(안정적)	2015-06-08	
페이퍼코리아	한신평		BB-(안정적)	2015-06-03	
포스코플랜텍	NICE	CC↓	CC(안정적)	2015-06-04	
하나카드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3	
한국가스공사	한기평		AAA(안정적)	2015-06-08	
	한기평		AAA+(안정적)	2015-06-08	후순위
	NICE		AAA(안정적)	2015-06-08	
	NICE		AA+(안정적)	2015-06-08	후순위
한국남동발전	NICE		AAA(안정적)	2015-06-08	
한국남부발전	한기평		AAA(안정적)	2015-06-03	
	NICE		AAA(안정적)	2015-06-03	
한국자원투자개발	NICE	B-(안정적)	취소	2015-06-02	
한국전력기술	NICE		AA(안정적)	2015-06-05	
한국타이어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2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연대보증
한국투자증권	NICE		AA(안정적)	2015-06-08	
한솔이엠이	NICE		BBB-(안정적)	2015-06-04	
한진해운	한기평		BBB-(부정적)	2015-06-02	
한화갤러리아	NICE		A-(안정적)	2015-06-04	
현대로템	한신평		A+(안정적)	2015-06-02	
	NICE		A+(안정적)	2015-06-02	
현대스틸산업	한신평		A(안정적)	2015-06-04	
	NICE		A(안정적)	2015-06-04	
현대증권	한신평		AA-(안정적)	2015-06-03	
현대파워텍	NICE		AA-(안정적)	2015-06-08	
효성	NICE		A(안정적)	2015-06-04	
	한신평		A(안정적)	2015-06-02	
힐라코리아	한신평	A-(안정적)	WR	2015-06-08	
희성금속	NICE		A(안정적)	2015-06-04	

*6/8 오후 6시 이전 공시 기준

〈지난 주 기업어음 등급공시(6/2~6/8)〉

회사명	신평사	직전등급	현재등급	평가일
동원건설산업	NICE		A3+	2015-06-05
메리츠캐피탈	NICE		A2	2015-06-05
메리츠캐피탈 (연대보증 메리츠금융지주)	NICE		A1	2015-06-05
삼성중공업	NICE		A1	2015-06-03
삼성증권	한기평		A1	2015-06-02
삼천리	한신평		A1	2015-06-04
세아창원특수강	NICE		A2+	2015-06-03
신세계	NICE		A1	2015-06-05
아워홈	한기평		A1	2015-06-02
	NICE		A1	2015-06-05
에스케이치공사	한신평		A1	2015-06-04
	NICE		A1	2015-06-05
에스케이케미칼	한기평		A2	2015-06-08

엘지하우시스	한신평		A1	2015-06-04
외환에프앤아이	한기평		A2-	2015-06-02
울촌화학	한신평		A1	2015-06-05
	NICE		A1	2015-06-02
케이티렌탈	한신평	A2+	A1	2015-06-03
	NICE	A2+	A1	2015-06-03
케이티캐피탈	한기평		A2+	2015-06-05
	한신평		A2+	2015-06-05
포스코플랜텍	NICE	C↓	C	2015-06-04
하나카드	한신평		A1	2015-06-03
한국가스공사	한기평		A1	2015-06-08
	NICE		A1	2015-06-08
한국남부발전	한기평		A1	2015-06-03
	NICE		A1	2015-06-03
한국중부발전	한기평		A1	2015-06-08
	NICE		A1	2015-06-08
한국타이어	한신평		A1	2015-06-02
한신공영	한신평	A3-	WR	2015-06-08
한화갤러리아	NICE		A2-	2015-06-04
현대로템	한신평		A2+	2015-06-02
	NICE		A2+	2015-06-02

*6/8 오후 6시 이전 공시 기준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